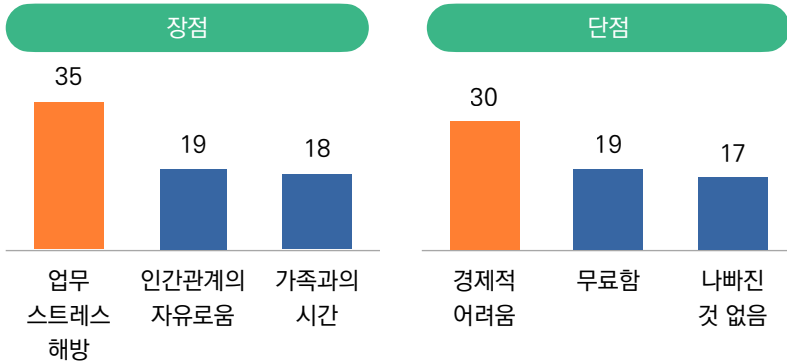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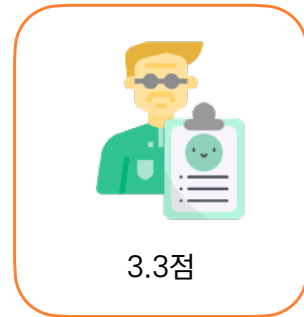
## [은퇴와 노후 생활] 은퇴 후 '업무 스트레스' 대신 '경제적 어려움' 온다!

-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'은퇴시장 리포트'를 통해 은퇴자들이 느끼는 생생한 노후의 민낯을 살펴본다.
-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장·단점을 물었을 때, 장점으로는 '업무 스트레스 해방'(35%)을, 단점으로는 '경제적 어려움'(30%)을 가장 높게 꼽았다.
- 다만 이들의 은퇴 후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.3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그다지 높지 않았다.

[그림] 은퇴 후 장·단점 (50세 이상 은퇴자, 각각 상위 3개, %)



[그림] 은퇴 후 생활 만족도 (50세 이상 은퇴자, 5점 만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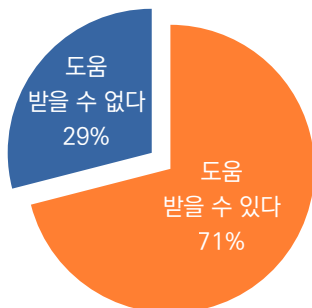
※출처: 보험개발원 보도자료, '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은퇴종합백서,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', 2026.01.08.

## 노인 10명 중 3명, '아프거나, 이야기 상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 없다!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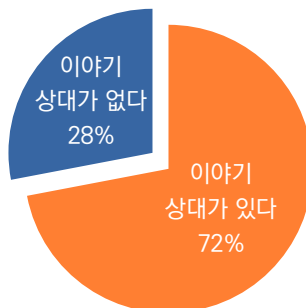
-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관계를 살펴보면,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'도움받을 수 있는/이야기 상대가 있는' 비율은 각각 71%, 72%로 비교적 높았지만, '도움을 받을 수 없다'(29%)와 '이야기 상대가 없다'(28%)도 10명 중 3명꼴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.
- 노인들이 몸이 아프거나, 대화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관계망이 여전히 부족한 점에 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[그림] 고령자의 사회관계 (65세 이상)

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



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



※출처: 보험개발원 보도자료, '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은퇴종합백서,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', 2026.01.08.